

보도설명자료

(‘13. 10. 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겨울철 LPG용기 부족 대란 오나” 보도에 대한 입장
(‘13.10.24, 동아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는 제조 후 26년이 지난 LPG용기를 의무적으로 폐기하는 ‘LPG용기 사용연한제’를 석달만에 백지화하는 법령을 개정
 - LPG용기 제조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오는 11월부터 용기 공급을 중단하고 유통용기의 안전성 문제도 함께 제기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LPG용기 사용연한제 개정은 동절기 LPG용기의 수급 대란을 피하고, 서민층 연료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
 - * LPG용기 수급불균형 발생, 서민층 용기 교체비용 부담 과다, 용기제조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
- ☐ 정부는 LPG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용기 제조업체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
- ☐ 향후 사용연한제 개선에 따른 용기 안전관리 강화와 LPG용기 안정공급 등을 위해 제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조웅환(02-2110-5441)